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한영이 막달레나 (1783-1839)

외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한영이는 혼기에 이르러 권 진사(進士)의 후처로 들어가 딸 권진이를 낳았다. 그는 대세를 받은 남편이 죽으면서 천주교를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자 딸과 함께 입교하였다. 그 뒤 신앙 생활을 위해서 딸과 함께 집을 나와 교우들 집에 몸 붙여 살았다.

1839년 7월 17일, 한영이는 딸 권진이와 딸의 친구 이경이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리고 12월 29일, 6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56세였다.



성화_김윤희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96(95), 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요나 3, 1-5, 10

화답송 시편 25(24), 4-5, 7, 8, 9(4가)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1코린 7, 29-31

복음 환호송 마르 1, 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마르 1, 14-20

영성체송 시편 34(33), 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요나가 타르시스로 가려 한 까닭은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바다” “서쪽 바다”로 소개되는 지중해는 이방인 선교와 깊이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앗으로 가득 할 것”이라는 이사 11,9을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 ‘요나’가 이방인 선교를 맡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요, 과거 비둘기가 전령 구실을 하였듯이(창세 8,8-12) 요나도 먼 니네베까지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기도 하므로(시편 74,19), 요나는 하느님의 맡아들로서 온 세상에 주님을 알려야 하는 이스라엘(탈출 4,22)의 대표격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애초부터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길 바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피하려고 비둘기처럼 어리석게(호세 7,11) 행동합니다. 하느님이 바다와 물을 만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도(요나 1,9) 그분을 피해 바닷길로 도망가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중해의 야포 항에서 타르시스행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타르시스행 배를 탔을까요? 그 이유는 타르시스가 옛 이스라엘에서 세상 끝처럼 여겨진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시편 72,10-11 등). 이사 66,19에는 타르시스가 ‘주님 영광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먼 섬들’과 병행어로 소개됩니다. 이후 야고보 사도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가지요. 타르시스로 추정되

는 ‘타르테수스’ 유적지 역시 오늘날 스페인(남부)입니다. 니네베의 정반대 편입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하느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타르시스행 배를 탔던 건 아닙니다. 타르시스가 니네베 반대편의 세상 끝과 같은 곳이니 니네베로 가지 않겠다는, 최대한 거기서 멀어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려 한 건 요나 1,3에서 잘 드러납니다.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한 절에서 “타르시스”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주님의 피하여”라는 구절이 수미쌍관으로 나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요나가 항구로 갔다는 의미지만, 주님을 거역하려 했다는 느낌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멀어지려는 시도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자리했던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지금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에즈 1,3; 예레 31,6 등). 요나는 하느님 눈에서 멀어지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라는 이름은 다른 사실도 암시합니다. 집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그 역시 결국엔 주님께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호세 11,11). 이런 상징성 때문일까요?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지중해의 야포 항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사도 10장).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여 | 사 명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종합보고서

지난해 10월 4일(수)부터 29일(주일)까지 바티칸에서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가 열렸습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10월 28일(토)에는 이 기간 중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3부 2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있을 제2회기까지 우리 교구는 3가지 주제를 선정해 더 깊이 논의한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할 것입니다. 이번 종합보고서에 담긴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 시노드적인 교회,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의 모습

1. 시노달리타스: 경험되고 성찰된 내용을 어떻게 확대하고 심화할 것인가?
2.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고 세상에 파견되기 위해 초대되었다.
3. 세례와 견진을 통해 성체성사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신앙 입문의 과정
4.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어떻게 이들과 형제가 되어 함께 걸어갈 것인가?
5.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의 이주민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의 교회
6. 동방 교회 형제들과 협력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
7.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하여: 개신교 교파들과의 대화와 일치, 함께 걷기

제2부 - 다양한 하느님 백성: 모두가 제자이며 모두가 선교사다

8. 교회는 사명: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에 각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9.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여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함께 건도록 불리는가?
10. 축성 생활(수도회)과 평신도 단체는 어떻게 함께 건도록 불리는가? 은사와 쇠신
11. 교회의 부제와 사제들은 어떻게 함께 건도록 불리는가? 직무와 양성, 성직주의
12. 주교들: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친교 안에서 주교의 역할과 사명, 형제애의 요청
13. 로마의 주교: 교황과 주교단의 협력

제3부 - 서로 연결되어 유대를 이루고 공동체를 구성하기

14. 교회 안에서 사명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 위해 어떻게 초대하고 양성할 것인가?
15. 함께 걷는 교회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어떻게 나누고 식별할 것인가?
16. 교회는 경청과 동반의 함께 걷는 여정을 어떻게 깊고 넓게 이어갈 것인가?
17. 현대 디지털 문화의 원주민인 젊은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걸어갈 것인가?
18. 함께 걷기 위한 교회의 조직들(사목평의회 등)은 어떻게 발전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19.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주교회의, 대륙 공의회 등)은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가?
20. 세계주교시노드는 무엇을 체험하였고 어떻게 함께 걷는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



너는 나의 종잣돈, 나는 너의 이자 값이야

40년 전에 개설했던 자유적금통장이 친정집에서 나왔습니다. 잉크로 번진 얼룩이 세월을 말해줍니다. 친정 아버지의 상기된 목소리, “농협에 가서 찾아. 2만5천 원이 작은 돈이냐? 이자가 꽤 붙었을 거다.” 저는 기억에도 없던 통장입니다. 펼쳐보니 2만5천 원이 아닌 2천5백 원입니다. 첫날엔 300원 입금, 두 달 후엔 500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500원, 다시 1,200원. 이때 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농협이 있었으니 학교하면서 들렀을 겁니다.

“적은 돈인데 저축할 생각을 했네.” 그러자 엄마가 거드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1주일에 얼마씩 용돈을 줬었거든.” 작은 정성, 첫 300원이 종잣돈입니다. 얼마의 용돈에서 뎀 건지 모르지만,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적금통장 위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겹쳐 보입니다. 농협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 같습니다. 300원을 넣던 날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며, 500원을 넣던 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가늠해봅니다. 저축액이 쌓이는 것을 보며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장녀로서 뭐든 잘해야만 했었고, 항상 긴장했습니다. 술 드시고 무섭던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힘없는 엄마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의 사춘기 시기의 상처도 내 과거의 동굴 어느 지점에 멈춰 있으면서 통장의 종잣돈처럼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40년 만에 얼룩진 얼굴로 나타난 적금통장이, 그때의 불안하고 외롭고 슬펐던 나를 보게 해준 겁니다.

기억을 타고 세 개의 장면이 건너옵니다. 학교 교정과 농협 그리고 읍내에 있는 성당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영성체와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성당에 열심히 다니며, 판공 때면 누가 잔소리할 것도 없이 미사포 들고 동네 공소로 뛰어가서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그 광경은 힘들었던 우리 엄마에게 자랑거리였고, 지금도 자주 되뇌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했던 나의 사춘기 시절,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순수한 영적 갈망이 신앙의 종잣돈이었던 겁니다. 치열하게 아파하고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부모님과 하느님께 진심이었던 나는, 그 적금통장의 믿음 값이 얼마인지, 종잣돈은 또 얼마나 붙어났는지 헤아려보기로 합니다. 하여,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는 읍내의 농협으로, 지금의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 줄 겁니다.

“너 참… 기쁘게 하느님을 사랑했구나. 너의 믿음 값 덕분에 나 잘 살아왔고, 엄청난 이자가 붙어나서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 그래, 그때의 너는 나의 종잣돈이고, 지금의 나는 너의 이자 값이야.” ☺



교구장
동 정

21(주일)	교감단 연수 파견미사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23(화)	교구청 간담회 - 교구청 회의실
26(금)	사제평의회 - 교구청 회의실
27(토)	신앙교육원 졸업미사 - 주교좌의정부성당

이번 주 성경 읽기

1/21(주일)~27(토) : 루카 3,23-4,13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27(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교구
소식

고3, 일반 예비신학생 첫 모임

일시 2/4(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미사 안내 ▶



2024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의정부본원 저녁반 화·목 19:30~21:40 신앙교육원

남양주본원 오후반 수·금 14:00~16:10 지금동성당

과정 2년제 4학기, 매학기 4과목 (3개월 수업)

신청 2/15(목)까지 [선착순 100명], 홈페이지 참조 (포털 → '신앙교육원' 검색)

등록금 학기당 35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철원-연천-파주]

날짜 1/30(화)~31(수) [1박 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회비 9만원 (청소년 7만원)

접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시메온의집 직원 모집

인원 여 0 명 (60세 이하)

모집분야 미화 및 주방업무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자격증 사본

근무처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71 시메온의 집

근무시간 주말 근무 포함 (주 40시간)

우편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3층 관리국

문의 031-850-1426 관리국

의정부교구 제139차 ME 주말

날짜 2/23(금)~25(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4515-3854 의정부ME

미사 · 피정 ▶▶

교구 성령쇄신 금요일기도회

일시: 1/2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솔로몬(성경 속 인물에 관한 영성2)
강사: 김동희 모이세 신부(마두동 주임)
문의: 010-2127-0032

3.4지구 성령기도회 월피정

일시: 1/26(금) 13시~16:30, 주교좌 의정부 성당
강의: 박규식 안브로시오 신부
문의: 010-3790-0496

다락방 피정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초기 교회공동체 체험을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피정
일시: 2/5(월)~6(화)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2/4(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렉시오 디비나 - 양주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원

렉시오 디비나와 첫 토요일 신심미사
1일: 2/3(토) 14시~17시, 1만원
3박 4일: 2/20(화) 15시 ~ 23(금) 점심, 24만원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5230-2986
cafe.naver.com/monteoliveto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 - 입문

일시: 3/9(토) 15시 ~ 10(주일) 13시
장소: 왜관 피정의 집
회비: 8만원 (접수 후 입금)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23(화) 김창숙 단장, 1/30(화) 이상기 회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 담당: 김종국 신부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 피정

1차: 1/30(화)~31(수), 2차: 2/20(화)~21(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 피정비: 10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가정선교회 2월 피정 및 미사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2/3(토) 김종섭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2/7(수) 최황진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2/17(토) 이창진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7시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 피정: 매월 첫 금요일
2/2(금), 3/1(금) 10시~15:30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내 300주년 기념 경당
사순 피정: 2/27, 3/5, 12, 19 매주(화)
대침묵 피정: 3/8(금)~10(주일) [2박 3일]
단식 피정: 3/20(수)~24(주일) [4박 5일]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6(금)~24(토), 3/16(토)~24(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신곡2동 성당 관리원 채용

대상: 세례 받은 교우, 시설관리 업무
인원: 1명 (계약직)
※ 자세한 사항은 교구 및 본당 홈페이지 참조

호평동 성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우,
사무행정, 회계 업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류 반환 불가)
접수: 1/24(수)까지, 우편만 가능
접수: 경기 남양주시 늘을로 73번길 27
호평동 성당 (우 12142) / 전화 문의 사절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예수회센터 봄학기 현장 및 비대면 강좌 - 3월 개강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 서명원 신부
현장강좌 - 매주(화) 14시~16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 신부
현장강좌 - 매주(금) 10시~12:30
비대면 동영상 강좌
- 화요일, 19:30~22시 (13주 과정)
- 목요일, 19:30~22시 (13주 과정)
영성과 철학상담: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비대면 동영상 강좌 - 매주(화) 19시~21시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2/16(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추가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2/14(수)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주3일 (신청 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 취득) 교육

봉사자반 (10주) 3/9~5/11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 (300시간) 3/9~10/26 매주(토) 09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교구청 내 대회의실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문의: 031-874-6272
http://cafe.daum.net/c-sj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연도아카데미 전문강사과정 모집

본당, 관련단체에서 연도 전문강사로 활동하실 분
기간: 1년 과정 (1학기과 2학기로 진행)
이론 - 비대면수업, 실기 - 대면수업
일시: 3/6(수) 개강, 매주(수) 19시~20:30
장소: 명동성당 영성센터 A 401호
수강료: 각 학기당 260,000원
주최: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주관: 성음악위원회 가톨릭 상장례음악연구소
문의: 010-3211-8941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16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신자, 프란치스코 성
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양성 받기를 희망하는 분
접수: 2/29(목)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 담당

가톨릭 성서모임 성서40주간 모집

일시: 3/4(월)부터 매주(월) 10시~12시
장소: 호평동 성당 대성전 / 회비: 8만원
문의: 010-7624-3721 대표봉사자

한국 오라토리오싱어즈 단원 모집

일시: 매주(월) 19시
대상: 교회 음악(오라토리오, 미사곡) 연주에 관심 있는 분, 전공자, 유경험자 환영
문의: 010-6292-6225 시스띠나 음악원

(소규모양로원) 우양의 집 어르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주소: 파주시 하지석길 267-74
운영: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문의: 010-9271-4694

덕계동 성당 교중성가대 반주자 모집

미사: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가톨릭 신자로 성가대 반주 경험 있는 분
가톨릭 성가 반주 가능한 분(비 전공자 가능)
(소정의 수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031-857-1695 덕계동 성당

선교아카데미 13기 교육생 모집

날짜: 3/7~10/17, 매주(목)
장소: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서울 성북동)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비용: 95만원 (식대 포함)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원데이클래스

일시: 1/27(토) 14시 / 대상: 청년
내용: 원석 묵주팔찌 만들기
문의: 010-5639-8071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1(월) 산티아고 도보순례 118km (12일)
4/15(월) 메추고리에 발칸3개국 헝가리 (12일)
4/17(수)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20(월) 튀르키예(터키), 그리스 (12일)
5/20(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26(금)~29(월), 2/16(금)~19(월),
3/15(금)~18(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4/5(금) 프랑스 성모성지순례 (529만원)
4/17(수) 발칸 메추고리에 (429만원)
4/2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449만원)
5/13(월) 스페인 북부, 포르투갈 루르드 (46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4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한라산 눈꽃산행: 2/17(토)~19(월)
2/25(주일)~27(화), 3/10(주일)~12(화)
성지순례(추자도): 3/21(목)~24(주일)
4/13(토)~16(화), 4/25(목)~28(주일)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11(월)~21(목) 동부유럽 성지순례 (480만원)
3/17(주일)~28(목) 유럽 성모발현지(545만원)
4/22(월)~ 5/3(금) 발칸반도 성지순례 (510만원)
5/17(금)~29(수)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 중점 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연중 접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포함: 2/14(수)~16(금), 2/23(금)~25(주일),
2/27(화)~29(목)
추자도 포함: 3/1(금)~4(월), 3/13(수)~16(토),
3/23(토)~26(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예수고난회 성지순례

감사 -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일시: 5/22(수) 07:30 ~ 24(금) 18시
회비: 1인 36만원 (1인 1실)
장소: 서울 출발→광주 명상의집
문의: 062-571-5004, 010-4402-8014

DIocese of Uijeongbu

피정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피정

날짜: 2/17(토)~18(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교재: <멘토의 탄생> 프랑수아 드 페를롱 지음, 강미란 옮김, 푸르메, 2012
주제: 멘토를 만나기, 멘토가 되기
회비: 6만원 (교재 미포함)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모집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타악기
일시: 2/18(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자유곡)
문의: 010-8419-0073

어린양의 털로 만든 팔리움

미사를 드리시는 교황님과 대주교님들의 제의를 보면, 보통 제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의 위로 어깨와 목 주위를 두르는 좁은 고리 모양의 흰색 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띠는 팔리움(pallium)이라고 부르는데, 주교 임무의 충실성과 법률적으로 부여받은 관구장의 권한을 상징하고 교황청과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외적 표지입니다.



팔리움은 양털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양털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건 양이 지닌 성경적 의미 때문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봉헌되던 희생제물입니다(탈출 12,1-14; 29,38-39). 또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라고 하였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은 ‘희생’과 ‘속죄’의 의미를 지닌 동물이었습니다. 또한 양털로 짠 팔리움을 착용하는 것은 ‘목자가 되찾은 양을 어깨에 멘 모습’(루카 15,5)을 떠올려줍니다. 이로써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리하여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권한과 임무를 드러냅니다.

팔리움은 폭이 4~6cm이며, 가운데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양쪽 끝은 가슴과 등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엔 여섯 개의 십자가가 새겨지는데, 정의, 용기, 절제, 예지라는 네 가지 덕행과 마르타의 활동적인 삶과 마리아의 관상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가슴과 등의 끝부분은 검정 비단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팔리움은 해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 만듭니다. 우선, 팔리움을 위해 양털을 제공하는 양들은 보통 로마 성밖의 성 바오로 대성전 인근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사육됩니다. 그리고 교황은 해마다 성녀 아녜스 축일인 1월 21일에 어린양 두 마리를 축복합니다. ‘아녜스’라는 이름이 어린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마리는 흰색 모포에, 다른 한 마리는 붉은색 모포에 감싸여 축복되는데, 각각 동정과 순교를 상징합니다. 축복된 양들은 베네딕토회 수녀들에게 보내지고, 양털은 성주간이 임박해 깎입니다.

제작된 팔리움은 6월 29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 중에 축복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교황이 새 대주교들에게 직접 걸어주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부터 각 지역 교회에서 팔리움 수여식이 거행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소속 교구민들과 이웃 주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월 29일 바티칸에서 팔리움 축복식과 전달식만 거행됩니다.

오늘 축복되는 어린양의 털로 ‘그리스도의 명에’를 쓰시는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